

第144回國會  
(閉會中)

5·18光州民主化運動  
真相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第22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88年12月22日(木)  
場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145號室)

議事日程

-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真相糾明을위한聽聞會

審査된案件

-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真相糾明을 위한聽聞會(계속).....1面

(零時4分 開議)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읍니다.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真相糾明을위한聽聞會(계속)

○委員長 文東煥 議事日程 第1項 5·18光州民主化運動의真相糾明을위한聽聞會를 계속 上程합니다.

그러면은 徐銘源證人의 證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證言을 듣기 전에 關聯法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에는 證人이 同法을 違反하면 處罰할 수 있는 規定과 刑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證言內容에 대하여 不利益處分을 받지 않는다는 保護規定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은 證人宣誓가 있겠읍니다.

證人 앞으로 나와 宣誓해 주십시오.

○證人 徐銘源

(證人宣誓)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은 徐銘源證人에 대해서 각 交渉團體別로 配定된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民主正義黨에 20分 平和民主黨에 27分 統一民主黨에 10分 新民主共和黨에 20분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시간을 지켜서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徐銘源證人에 대한 訊問委員은 모두 다섯 사람입니다.

金仁坤委員 李育珪委員 崔鳳九委員 吳景義委

員 辛基夏委員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新民主共和黨의 金仁坤委員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분이 割當되어 있습니다.

○金仁坤委員 新民主共和黨所屬 金仁坤委員입니다.

證人! 오늘 光州에서 올라 오셨습니까?

○證人 徐銘源 예.

○金仁坤委員 新聞에 보니까 光州에는 눈이 많이 왔다는데 괜찮습니까?

○證人 徐銘源 예. 많이는 오지 않고 조금 내렸읍니다.

○金仁坤委員 오늘 우리 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셨고 느끼셨고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밤늦게 나와 주셨고 千里길 마다 아니하고 臨席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포함합니다.

證人은 5·18光州抗爭當時 全南大學校本部 學生課長으로 계셨습니까?

○證人 徐銘源 예.

○金仁坤委員 學生課長으로 勤務하신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證人 徐銘源 1980年3月18日자로 發令받았읍니다.

○金仁坤委員 그만 두시게 된 것은요...

○證人 徐銘源 그만 두는 날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戒嚴司에 잡혀 가 있는 동안에 그만 發令이 나가지고...

○金仁坤委員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免職을 시켰군요?

○證人 徐銘源 예.

○金仁坤 그러면 強制免職을 시켰군요?

○證人 徐銘源 하여튼 저는 뭐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金仁坤委員 예. 알겠습니다.

學生課라고 하면 그 業務性格上 어느 部署 못지 않게 學生들과 접촉이 많았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金仁坤委員 또 당시에 學生들의 動態라든가 모든 것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셨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러면 80年 5月18日을 前後한 全南大學校의 學生示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당시 學生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으며 學內問題에서 政治的인 「이슈」를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 당시 學生들이 學外問題를 學論하였던 바 그 배경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할 수 있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예. 대강 나온 口號들은 戒嚴令解除 政治日程의 短縮 또 申鉉礪 全斗煥 退陣 그런 것들이었는데 사실상 10·26事態가 난 뒤에 學園自律化運動을 積極的으로 전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오냐 하면은 新學期가 開學될 때까지는 學園自律化運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新學期가 開始되면서 그러니까 3月初旬부터는 自治會構成이 4月19日 學生會長들이 就任함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4月19日 이후에는 5月13日까지는 間歇的으로 이제 學內問題 또는 政治問題들이 學論이 되었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벌써 全斗煥一族이 政權을 篡奪하기 위해서 모든 計劃을 세웠고 12·12事態를 일으켰고 또 그 政治日程을 短縮하지 않았고 이런 것 등등을 모든 國民도 알았고 학생들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내건 것이 아니겠습니까?

○證人 徐銘源 글썽요. 지금 같아서는 그것을 6·29宣言 이후에 學生運動이 사실상 街頭로 나오지 않는 것만 봐도 그때 그와같은 조치를 했었으면 어땠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校內運動으로 약간 기울어진 경향도 있었지요?

○證人 徐銘源 그때 저희 학교에서는 5月14

日날 市內로 진출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 그래서 14·15·16日 3日間 연속 市內進출을 해가지고 16日날 저녁 핏볼「데모」를 하고 해산하면서 그때 당시 學生會長이었던 박관현군이 우리들의 뜻은 충분히 이제 전달했다. 그래서 우리는 政治圈에서의 하는 것을 기다려 보기로 하고 이제는 학원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는 17日도 수업이 있었습니다.

○金仁坤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全南大學校 학생이었던 韓尙錫씨가 쓴 自由「노트」에 보시면 당시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도 軍部介入의 명분을 줄까 염려하여 流血事態를 지양하고 平和的 非暴力的 方法을 견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했는데 證人은 당시 학생「데모」를 어떻게 봤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때 流血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는 가장 평온하게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무슨 火焰瓶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火焰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金仁坤委員 지난 번 聽聞會에서 韓尙錫씨 證言은 全南大에서 5月12日과 15日 戒嚴軍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證人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徐銘源 戒嚴軍이 .....

○金仁坤委員 가만 있어 ..... 戒嚴軍하고 一般的인 戒嚴軍하고 가장 무서운 部隊 空輸部隊하고는 좀 구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銘源 16日 저희 학교가 正門하고 後門이 있습니다. 그래서 正門으로 들어왔다가 東門으로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金仁坤委員 戒嚴軍이요?

○證人 徐銘源 그것은 모릅니다. 저희들은 戒嚴軍이었는데 어떤지를 .....

○金仁坤委員 하여튼 軍人은 軍人이었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지요.

○金仁坤委員 학생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

○證人 徐銘源 예.

○金仁坤委員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으로 街頭進出한 것은 5月14日이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예.

○金仁坤委員 5月14일부터 戒嚴擴大 이전인 17일까지 학생들의 「테모」양상과 全南大의 動向에 대해서 아는데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證人 徐銘源 14日 실은 그 애들이 그날은 밖으로 나갈 計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4日 우연히 그저 正門을 통해서 나갈려고 처음에 計劃을 세웠는데 그건 사실상 示威에 그치고 다음 날 15일부터서나 나갈다고 그렇게 計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4日 조금 충돌이 있었는데 그 충돌이 이제 正門에서 있었고 그리 農大쪽이 이제 골목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가지고 한 2,000名 정도가 市內를 진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순조롭게 街頭 「테모」가 진행이 되니까 15일날도 역시 그렇게 연속됐지요.

○金仁坤委員 그래서 이때 학생들의 市內示威는 매우 질서가 정연했지요? 그리고 특히 5月16日 蠟燭示威는 示威隊와 경찰의 友好的인 협조 속에서 충돌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날 敎職員들이 경찰의 협조에 감사하는 뜻으로 慰勞券까지 전달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랬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러면 지극히 民主的인 示威였구만요?

○證人 徐銘源 글썽요. 敎援님들도 그렇게 같이 그때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民主的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평온한 상태에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仁坤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質問하겠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示威 鎮壓을 警察力으로써는 力不足하였으며 空輸部隊의 投入이 지극히 필요한 狀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金仁坤委員 아니 常識的으로 생각할 때...

○證人 徐銘源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 때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警察力가지고도 충분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金仁坤委員 오히려 학생들과 警察들은 友好的인 그러한 면에서 示威가 이루어졌고 별사고가 없이 잘 됐기 때문에 敎援님들이 警察들에게 위로금까지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대충 空輸部隊가 필요없다고 하는 狀況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同意하시지요?

○證人 徐銘源 예. 그때 아마 誠金으로서 15萬원 정도를 현장에서 각출해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金仁坤委員 고맙습니다.

空輸部隊가 全南大에 진주한 것은 정확하게 언제였습니까? 空輸部隊입니다.

○證人 徐銘源 空輸部隊가 17日 11時 半경에 왔다고 소식은 들었습니다.

○金仁坤委員 17日이요?

○證人 徐銘源 예.

○金仁坤委員 그런데 이때 空輸部隊가 학생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팬티」만 입힌 채로 옷을 벗기고 구타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렇다면 엇그제 와서 證言한 사람들 전부 虛偽證言을 했군요. 어제 밤에 와서 한 사람들도…… 하나도 다치지름 않고 조금만 다쳐도 약을 발라서 자기 아들과 마찬가지로 감싸주고 했다고 했는데 전부 이전 전부 虛偽證言이라는 것을 오늘 치금 입증을 하시는 것이지요?

○證人 徐銘源 제가 새벽 세時에 그 연락을 받고 여섯時경에 학교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아는 애들이 얼굴이 부어가지고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金仁坤委員 너무도 많이 맞아서 얼굴이 부었다 이 말씀이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지요.

○金仁坤委員 가혹한 행위였군요. 5月18日10時경 全南大 正門에서의 狀況에 대해서 잠깐 물겠습니다.

직접 보았거나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들은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권승만證人은 全南大 正門에서 절대로 학생들을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現場 목격자와 지난 번 韓尙錫씨에 의하면 空輸部隊의 流血毆打가 있었으며

심지어 法大 신某 教授까지 수모를 당 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이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金仁坤委員 점차로 어제 그 證인들이 虛偽 證言한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委員長!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시 示威 鎮壓에 충돌했던 사람들의 提報에 의하면 5月 20日午後 3空輸旅團이 全南大 正門에서 示威 隊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섯 여섯구의 시체를 학교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한 곳에 가마니로 덮어 두었다고 하였는데 證人은 光州 抗爭 기간 동안 또한 그 이후에라고 全南大 내에서 이 시체를 본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徐銘源 시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동쪽에 東門 쪽에다가 팔 다리만 나오게 해 놓고 가마니째 기로 덮어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체였는지 다쳐서 그렇게 덮어 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金仁坤委員 팔과 다리는 나오고 그냥 얼굴을 가려서 전체를 가마니로 덮어놨다. 그 말씀이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지요.

○金仁坤委員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때에 다친 사람을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이 죽지를 앓고 다치기만 했다면 아무리 다쳤다고 하더라도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證人 이 보시기로는 손과 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늘어져 있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예.

○金仁坤委員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는 시체라고 봐야 되겠지요. 다시 저승에 갔다가 너는 民主主義를 가서 다시 해라 하는 의미에서 살려내 보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한 죽은 시체라고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證人은 光州鬭爭 以後 學生들의 民主化運動을 도왔다는 이유로 면직된 사실이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상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銘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月18日날 제가 發劄을 받아서 學生課長으로 勤務를 하다가 5·18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5·18 기간동안에 그 經緯를 쪽 現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수습한다는 그런 시기에 7月1日字로 제가 戒嚴司에 잡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戒嚴司에서 學生示威 선동 또는 방조 지원 그 嫌疑로 제가 거기에서 사표를 쓰게 되었습니다.

○金仁坤委員 대충 보면 大學의 學生課長들은 學生示威를 부당한 示威라면 막는 것이 常例인데 證人이 보시기로는 그 示威가 정당한 示威였다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동조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동조는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이지요?

○證人 徐銘源 사실은 정당한 示威라고 할지라도. 저의 입장에서는 말렸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렇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심하게 막지 않았다는 의미로 동조라고 물렸군요.

좋습니다. 그러시면 保安隊에 끌려가서 保安隊에 체포되어서 拷問 당한 狀況이라든가 이런 狀況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證人 徐銘源 그 調書 하나하나 거기에 들어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調書 하나하나 작성하는데 身體的인 苦痛이 심한 것은 사실이고 저는 사실 몸이 보시기에도 약해서 그 때 한때만 맞아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 사표를... 결국 최후에는 사표를 쓰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사표를 쓰기전에 그쳐 파면을 시켜주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해서 불러주는 대로 한 획도 가감하지 말고 받아쓰라고 그래서 받아썼고 또 사실은 印章이 제가 잡혀갔는데 인장이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인장을 갖다가 찍고 그 사표를 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學校에 전달이 됐지요.

○金仁坤委員 그 인장은 맥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제가 學校에다가 맡겨놓은 인장인데 그 인장을 갖다가 그렇게 날인했지요.

○金仁坤委員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시면 지금까지의 너무나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고 싶지마는 하시지 못한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는 물어봐 주었으면 속 시원하게 이런 자리에서 말을 함으로 인해서 全國民에게 그런 狀況을 알리고 싶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묻지 않았다 이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證人께서 나머지 시간이 約 3分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狀況을 자상스럽게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證人 徐銘源 發生原因에 대해서 오늘 午前에도 證人으로서 나오신 분이 地域感情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저는 회의라고 할까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民主化運動이 地域感情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그 地域感情은 계속 발생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人類社會에 여러가지 갈등요인들이 있는데 理念的인 것 體制的인 것 또는 民族的인것 宗教的인것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미개인적 요인으로 갈등이 일어났다 하면 地域感情이라고 할 것인데 光州民主化運動을 地域感情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모욕감을 가지고 있고 전체 國民에게 또 우리 韓國 사람이 과연 그 地域感情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國民을 참으로 그저 미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해서 저는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他地域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地域感情 운운했는데 그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 주셔야 이 地域感情이 심화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설사 그때 당시에 地域感情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陽性化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金仁坤委員 설사 地域感情으로 일어난 투쟁이었다 손치더라도 무자비하게 우리 國民들을 살상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만 목적은 全斗煥 일족이 國保委하고 있

는 사람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金仁坤委員!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李肯珪委員께서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分입니다.

○李肯珪委員 民主正義黨의 李肯珪委員입니다. 아마 同僚委員이 그 당시의 직책은 물었으니까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證人 徐銘源 현재 제가 살기가 좀 곤궁해서 그 뒤에 저희 집에서 하숙을 치고 생활했는데 學校에서 딱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기성회 직원으로...

○李肯珪委員 직책은.....

○證人 徐銘源 고용원으로 있습니다.

○李肯珪委員 證人은 지난 80年 5月17日 저녁에 全南大學校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徐銘源 야근은 안 했습니다.

○李肯珪委員 숙직 근무 했습니까?

○證人 徐銘源 안 했습니다.

○李肯珪委員 全南大學校에 空輸部隊員들이 도착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證人 徐銘源 11時 30分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李肯珪委員 누구한테...

○證人 徐銘源 숙직하는 직원한테 그 당시 당직하는 직원인데 그때는 그 직원이 조교로 있습니다.

선영주라고 하는 직원인데 지금은 副教授가 되었습니다.

○李肯珪委員 전화로 받았습니까? 집에서...

○證人 徐銘源 예.

○李肯珪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全南大學校에서 있었던 일 매일의상황보고는 副教授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學生課長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지요?

○證人 徐銘源 學生課長이 비교적 다 파악을 합니다.

○李肯珪委員 그런데 거기서 아까 金委員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鄭 雄 그때 31師團長은 「멘트」를 쳤다고 그랬어요. 全南大와 朝鮮大에 「멘트」를 친측은 31師團이고 空輸部隊가 도착하는 것은 다른 것이예요. 그것을

확실히 제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證人 徐銘源 오후에 「텐트」를 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 근무하고 퇴근을 오후에 했는데 오후에 「텐트」를 치고 밤 11時半頃に 通信 장비를 갖춘 部隊가 먼저 들어왔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李肯珪委員 그래요? 그런데 지금 證人이 조금 전에 金仁坤委員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하는 과정에서 새벽 3時頃に 전화 연락을 받고 6時頃に 學校에 가 보았더니 學生들이 많이 부어있었다고 그랬습니다.

全南大學校 學生들에 대해서 證人은 대부분 다 알고 계셨습니까?

○證人 徐銘源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잘 아는 學生이 두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오륙십名이 거기에 學校 현관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李肯珪委員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오륙십名인데 제가 아는 學生은 한 3名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學生會 副會長을 하고 있는 이승용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學生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도 깨지고 얼굴이 붓고 이마에 난봉이 나고 해서 그 學生이 제가 오니까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 것을 저는 누구인지 몰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肯珪委員 오륙십名이 있었다 그랬지요. 그들 學生들은 전부가 그랬습니까?

○證人 徐銘源 거기 현관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學生數가 오륙십名 입니다.

○李肯珪委員 다친 사람은 그때 부은 사람은 ...

○證人 徐銘源 그것은 제가 이승용군 또는 그외의 이름은 기억이 안납니다. 그 學生은 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 學生을 말합니다.

○李肯珪委員 그때 지난번 聽聞會에서 말이죠 김종배證人은 지난 번 聽聞會에서 全南大 상황을 보지도 못한 상황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學生들이 연행돼서 모여있던 복도에 핏자국이 흥건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다고 證言을 한 바가 있습니다. 證人이

그때 보았을 적에 복도에 핏자국이 많았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 그 자리는 아닙니다. 21日 午後 6時頃に 全南大學校에 진주해 있던 戒嚴軍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2日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그 部隊가 ...

○李肯珪委員 18일은 아니다 이거죠?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李肯珪委員 조금 전에 學生會長 그 친구하고 몇 사람이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타는 팬잡고 그러면서 證人이 얘기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팬티만 입고 구타를 당했다는데 그 상황이 어느정도 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구타를 당한 그 상황말입니까?

○李肯珪委員 몇 時에 보셨어요?

○證人 徐銘源 그것이 제가 6時에 學校에 가 가지고 보았습니다.

○李肯珪委員 6時에 하나 여기서 계속 해서 證人한테 묻습니다.

證人께서 지금 11時 半에 空輸部隊가 學校에 왔다 그러셨죠?

○證人 徐銘源 그렇게 報告를 받았습니다.

○李肯珪委員 學校에 대한 상황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정확히 學生課長이기 때문에 報告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證人께서 休校令과 戒嚴擴大 조치는 언제 누구로 부터 받았습니까?

○證人 徐銘源 제가 그날 토요일인데 學生代表들하고 제가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 10時頃이었습니다. 10時頃に 들어가 가지고 집에서 잠이 좀 들었을까 한데 저를 이제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을 따라서 간 곳이 저의 집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한 그 學生을 어디다 감추었느냐고 찾아주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노라고 그랬더니 그 學生 하나는 이미 예비검속으로 들어가 있고 學生 하나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 學生을 찾기 위해서 저를 찾았지요. 그래서 그 學生이 그 때 헤어졌노라고 하니깐 그 어딘가로 전화를 했는데 아마 잡혀간 그 學生에게 연락

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李肯珪委員 10시에 집에 들어가서 몇시에 파출소로 갔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 때가 11時頃입니다.

○李肯珪委員 집으로 돌아가신 것은?

○證人 徐銘源 12時頃입니다.

○李肯珪委員 12時頃에...

○證人 徐銘源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파출소에 가서 알게 됐지요.

○李肯珪委員 戒嚴措置 연락이나 擴大措置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證人 徐銘源 아닙니다. 거기서 이미 파출소에서 알고...

○李肯珪委員 파출소에서 알고...

○證人 徐銘源 파출소에서 저에게 물어 보았기 때문에 戒嚴軍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戒嚴軍이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李肯珪委員 조금 전에 선생님! 차분히 정리를 하세요. 여기가 國會입니다. 차분히 정리를 하시는데 아까는 3時頃에 전화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證人 徐銘源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李肯珪委員 그러면 徐선생님이 퇴근하실 10時頃に 學校에는 學生들이 얼마나 남아있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제가 1時頃に 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學生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李肯珪委員 1시에 퇴근하셨어요?

○證人 徐銘源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李肯珪委員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항시 퇴근하시기 전에 가끔 圖書館에 들러서 圖書館등 學校 쪽 돌아가시고 내츨 퇴근하시기 전에 수검하시는 것이 선생님의 일과였습니까? 한 번씩 돌아보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돌아보고 圖書館을 비롯해서 저희 事務室이 「서클」이 있는 곳입니다. 「서클」하고 總學生會가 있는 곳에 가서 저희 事務室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를 돌아보고 오고 그러지요.

○李肯珪委員 「서클」活動이요? 무슨 「서클」이요?

○證人 徐銘源 學生들 「서클」 말입니다.

○李肯珪委員 그 당시 全南大에 보통 「서클」이 몇 個나 있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때도 한 40個 정도가 있었습니다.

○李肯珪委員 그 당시 學生會長이 박관현이 맞습니까?

○證人 徐銘源 박관현입니다.

○李肯珪委員 박관현 學生會長 出馬時에 候補들 간에 나왔던 選舉「이슈」 생각나세요?

○證人 徐銘源 選舉「이슈」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납니다.

○李肯珪委員 지난 번에 여기 나왔던 鄭東年 證人에 의하면 박관현 學生會長이 當選될 수 있도록 돈을 좀 모아 주었다고 그러디다. 復學生들이 박관현 候補가 當選될 수 있도록 學生會長에 出馬했을 때 돈을 좀 모아 주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證人 徐銘源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李肯珪委員 진연 모르십니까?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40個의 「서클」活動이 여러가지가 있었을텐데 여기 나와서 證言한 몇 분의 얘기를 들으면 學生會 事務室에는 金大中씨의 肖像畫가 걸려 있고 건물벽 곳곳에는 「金大中씨를 大統領으로」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李肯珪委員 못 보았습니까?

○證人 徐銘源 예.

○李肯珪委員 政治的 구호만 붙은 것이... 못 보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證人 徐銘源 예. 그리고 사진도 없었습니다.

○李肯珪委員 鄭東年이는 있었다고 그때 와서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 분이 그것을 못 보셨어요?

○證人 徐銘源 예.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鄭東年씨가 사진을 갖다 주면서 걸으라고 했다고 그러디다. 그러니까 鄭東年씨는 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제가 가서는 한 번도 구경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룡군이 지금 유일하게 副會長이기 때문에...

○李肯珪委員 제가 鄭東年 證人 것을 한번 확인한 데 불과합니다. 됐습니다.

證人께서는 그러면 18日 6時에 出動하셨다고 그랬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李肯珪委員 18日 아침 6時에... 出動하시 가지고 本館... 學生들이 꿰어앉았던 데가 몇 층입니까?

○證人 徐銘源 1層입니다.

○李肯珪委員 1層입니까? 그들 만나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시고 대화만 하시고 헤어지셨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지 않았읍니다.

○李肯珪委員 그러면요?

○證人 徐銘源 그래서 거기 戒嚴 責任者를 만나서 어떤 협의가 없는 學生들을 이렇게 복도에 끌려와서 되겠느냐 그래서 歸家措置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訓放을 하든가 그렇게 해 주라 그랬더니 더 조사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선 3層 會議室로 옮겨가도록 하자 그래서 3層 會議室로 옮겨갔읍니다.

○李肯珪委員 옮겨가서... 戒嚴軍들이 순순히 들어 줬니까? 그러자고 그러니까?

○證人 徐銘源 예.

○李肯珪委員 3層에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證人 徐銘源 3層에 가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할 것도 같고 해서 빵도 조금 사다 주고 음료수도 사다 주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또 해서 주었지요.

○李肯珪委員 그 다음에는?

○證人 徐銘源 그리고는 저도 아침을 먹어야 하겠어서 또 그길로 집으로 밥을 먹으러 왔읍니다.

○李肯珪委員 밥을 잡수러 가시고... 그 다음에 學校는 안 가셨습니까?

○證人 徐銘源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8時半경에 學校에 또 들어갔읍니다.

○李肯珪委員宅하고 學校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證人 徐銘源 2km정도 됩니다.

○李肯珪委員 그러면 지금 여러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18日 아침에 全南大 校門앞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군요?

○證人 徐銘源 잘 압니다.

○李肯珪委員 어제 여기 權承萬證인이 와가지고 거기서 衝突事態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衝突事態 당시에 거기 가본적이 있습니까?

○證人 徐銘源 제가 아침 7時경에 學校에서 나갈때부터 衝突이 있었읍니다.

○李肯珪委員 어떤 衝突이요?

○證人 徐銘源 學生들이 소식을 모르고 圖書館에 공부할 하러 온 學生들하고 문을 지키고 있는 戒嚴軍들하고 衝突이 있었지요.

○李肯珪委員 7시부터요?

○證人 徐銘源 예.

○李肯珪委員 그런데 7시부터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가셨습니까? 그때 몇명이나 있던가요?

○證人 徐銘源 7時에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한 두사람씩 오면 거기에서 學生들이 圖書館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戒嚴軍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 왜 우리 學校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 소식 못들었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막는 사이에 순순히 말을 잘 듣는 學生들은 되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學生들은 거기서 항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毆打가 나옵니다.

○李肯珪委員 毆打를 해요?

○證人 徐銘源 예.

○李肯珪委員 어떻게요?

○證人 徐銘源 몽둥이로 거기서부터 毆打가 되지요.

○李肯珪委員 초소가 정문 앞에 몇 명의 軍인이 있었을텐데 몇명이나 있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5 6名 정도 있는 것으로 봤읍니다.

○李肯珪委員 5 6명이 몇명을 毆打합니까?

○證人 徐銘源 몇명이 아니라 한두 사람씩 오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毆打가 거기서 이루어졌지요.

○李肯珪委員 지금 毆打가 어떤 毆打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세요. 徐證人?

○證人 徐銘源 거기에서는 3박자 毆打라고 그때 그렇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어쨌죽지 양쪽 때리고 이마를 때리고 그러면 팍팍 쓰



러지는 毆打가 거기에서 이루어졌지요.

○李肯珪委員 여기 國會입니다. 여기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誇張도 해서는 안되는 자리입니다. 잘못하시면 僞證이 되십니다. 證人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감지하시고 잘 생각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證人 徐銘源 저도 史草를 기록하는 그런 자리에 협조를 해 드려야겠다 하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李肯珪委員 선생님 아까 내가 다시 職責을 묻지 않았는데 金仁坤委員이 얘기할 적에 全南大學校 學生課長이라고 그러셨지요?

○證人 徐銘源 學生課長... 사실은 學生課長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獎學擔當官職務代理 그렇게 發令을 받았읍니다.

○李肯珪委員 獎學擔當官職務代理요?

○證人 徐銘源 예.

○李肯珪委員 그때 당시 學徒護國團 會計出納官 아니십니까?

○證人 徐銘源 아 學生課長이라고 하는 職責이 그와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會計責任者는 支出官이라고 통상 그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學生處長은 재학관이라고 그러고...

○李肯珪委員 徐證人! 저도 調査를 해보았습니다. 徐證人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80年3月13日 全南大總長發令通知書에는 職責이 學徒護國團會計出納官이라고 發令이 되어 있습니다.

○證人 徐銘源 그것은 附隨的으로 發令이 난 것입니다. 學生課長이나 獎學擔當官職務代理같은 그와 같은 것은 附隨的으로 따라 붙습니다.

○李肯珪委員 그러면 하나 다시 물어 봅시다. 81年7月1日 連行되어서 辭表를 쓰시고 훈방되었다고 그러셨지요?

○證人 徐銘源 예. 하여튼 訓放인가 放免인가는 몰라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李肯珪委員 나오셨다고 그러셨지요?

○證人 徐銘源 예.

○李肯珪委員 협의 내용은 그때 당시 끌려가서 무엇무엇이 협의라고 그러니까?

○證人 徐銘源 아까 말씀드린 대로 學生示威의 煽動 幫助 資金支援 그렇게 되었습니다.

○李肯珪委員 무슨 資金支援이요?

○證人 徐銘源 學生들 示威資金支援이라고 그렇게 했지요.

○李肯珪委員 거기다 그렇게 썼습니까?

○證人 徐銘源 아 辭職願에요?

○李肯珪委員 아니 搜查 받을 때.....

○證人 徐銘源 그렇지요. 自衛書를 작성할 때 계속 그렇게 했지요.

○李肯珪委員 그것을 보면 學生들의 會費를.....

○委員長 文東煥 時間이 되었으니까 매듭을 지어주셔야 되었어요.

○李肯珪委員 조금 證人 말씀하신게..... 時間이 벌써 됐어요?

○委員長 文東煥 예. 時間이 됐습니다. 매듭을 지어주세요.

○李肯珪委員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學生들이 3月까지 學內 示威를 하다가 4月부터 學外 示威로 서너가지의 政治的인 구호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先生이 죽 가시기전에 學校에서 계시면서 7月1日 이전까지 죽 學校에 계셨으니까 그때 당시의 5.18당시에 光州市內에서 나왔던 流言蜚語는 대충 어떤거였습니까?

○證人 徐銘源 流言蜚語에 대해서는 모두 근거있는 流言蜚語들이 流言蜚語로써 굴절이 조금 됐습니다. 사실은 妊産婦가 죽어서 胎兒가 덩굴어다닌다고 하는 그것은 妊産婦가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와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李肯珪委員 그것 先生이 보셨어요?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李肯珪委員 언제 어디서?

○證人 徐銘源 全南大學校 앞에 사래지오高等學校가 있습니다.

○李肯珪委員 그 現場을 先生이 보셨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사래지오高等學校 뒤에가서 高等學校 先生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李肯珪委員 그때 당시 先生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있었습니다. 그때가 21日 입니다.

○李肯珪委員 나중에 時間 날때 다시 한번 先生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다시한번 확인을 합시다.

○證人 徐銘源 예.

○李肯珪委員 그 묘지가 망설동에 있어요?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그이가 최미애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분이……

○委員長 文東煥 다음 平和民主黨 崔鳳九委員 訊問하시기 바랍니다. 17分입니다.

○崔鳳九委員 平和民主黨의 崔鳳九委員입니다.

밤늦게 證人께서 證言에 응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證人은 5·18光州民主化運動 당시 全南大學校 學生課長으로 在職하면서 당시 示威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全南大를 비롯한 光州市內 일원의 示威 現場과 示威鎮壓에 입했던 空輸部隊 活動를 직접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생생한 證言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몇가지 밤도 길었으니까 간단히 訊問하겠습니다.

證人이 5月17日 23時 30分頃 合搜班員에 連行 당했지요.

○證人 徐銘源 그것은 連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잠깐 派出所에 가서 한 時間 정도 이야기하다가 왔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레가지고 調査받고 있다가 새벽 3時頃 學校에서 연락을 받고……

○證人 徐銘源 그래서 12時頃에 집에는 왔는데 學校에서는 3時頃에……

○崔鳳九委員 그래서 새벽 6時 쯤에 學校에 가 봤지요.

○證人 徐銘源 예.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5月18日 6時 이후에 通禁解除後 學校에 출근했을 때 목격한 상황과 全南大學校 敎職員들의 措置狀況은 어떠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래서 저희들이 6時에 가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學生들은 3層會議室로 옮기고 그리고 非常召集을 했습니다. 그래서 敎職員들이 모두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을 먹으러 나왔고 제가 아침 먹고 8時 半에 다시 登校해가지고 正門앞에서 學生과 戒嚴軍과의 충돌 상황을 거기에서 지켜보고 學生들 해산하도록 거기에서 줄곧 거기서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崔鳳九委員 10時 頃부터 戒嚴軍하고 學生들하고 실랑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구타가 시작됐는데 최초 원인행위가 어느 쪽에 있

었다고 봅니까?

○證人 徐銘源 그것은 學生이 들어오려고 하고 戒嚴軍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딱 10時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時頃부터 이미 圖書館에 오고자 하는 學生들 하고 충돌이 있었었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구타사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지요.

○崔鳳九委員 文敎部나 戒嚴司에서 學內動態報告書나 動態 파악 지시가 證人에게 지시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때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崔鳳九委員 5月18日 10時頃 全南大學校 정문앞에서 광성여객 從業員들이 戒嚴軍들에게 곤욕을 당했다는데 이 사실을 具體的으로 알 수 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그때 學生들이 모여서 示威를 하면 戒嚴軍들이 추격을 하지요. 그러면 그 옆에 광성여객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렸는데 學生들은 내버리고 정비공장에서 일하는 從業員들만 10餘名이 잡혀왔지요. 그레가지고 심하게 당했지요.

○崔鳳九委員 그러니까 學生들은 못잡고 整備工들만 애매하게 터졌다는 얘기지요?

○證人 徐銘源 예.

○崔鳳九委員 알겠습니다. 5月18日 10時 정문 앞 상황이후 證人은 이 사태가 종료되기까지 示威現場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徐銘源 그랬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래서 상당히 목격한 내용이 많겠구만요?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면 5月18日 17時頃 그러니까 午後 5時頃입니다. 市內「버스터미널」앞에서 뭐 示威가 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거기 光州에서 가장 충돌이 많은 곳이 市外「버스터미널」앞이고 新驛하고 그리고 그때 충금洞 지하상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센터」 앞입니다. 그래서 이 세군데에서는 아주 계속 그런 衝突事故가 있었었습니다.

○崔鳳九委員 그 衝突事故를 다 얘기할 것은 없고 5月18日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만 목격한 것 한가지만 생생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證人 徐銘源 거기에서 제가 거기를 學校 乘用車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서 示威가 있어서 지켜봤는데 모조리 잡으라고 그런 구호가 떨어지니까 그때 벼락같이 모두 달려들고 내배고 그레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銃劍術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최초로 목격을 했습니다.

○崔鳳九委員 아니 示威群衆한테 진짜 銃劍術을.....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사실입니까?

○證人 徐銘源 예.

○崔鳳九委員 그것이 왜냐하면 잘못 證言되면 僞證의 罪를 받는다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一般 示威群衆한테 銃劍術이라는 얘기가 믿기지 않아서 저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판입니다.

○證人 徐銘源 그 자리에는 거기에서 이제 말리는 警察도 戒嚴軍한테 맞습니다.

○崔鳳九委員 證人이 직접 現場에 있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證人은 맞지는 않았지요?

○證人 徐銘源 저는 안 맞았습니다.

○崔鳳九委員 19日 12時頃 수창國民學校앞에서 어떤 청년이 봉변을 당했다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徐銘源 저희들이 사실 光州市內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乘用車를 타고..... 그런데 電信柱에다가 청년을 매달아 놓은 것을 거기에서 봤습니다.

○崔鳳九委員 죽은 사람이었습니까? 산사람이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崔鳳九委員 거꾸로 뇌놓으니까 산지 죽은지도 모르고 매달려있는 것만 봤다 거꾸로...

○證人 徐銘源 예.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더이상 지긋지긋한

얘기는 안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一般 지금 視聽者들이 편히 주무실때니까 이 정도를 마칩시다.

全南大 法大 某教授가 校門에서 研究室로 가다가 戒嚴軍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그 教授가 어떤 폭행과 폭언을 당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 教授가 젊은 教授입니다. 그래서 이제 學校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身分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지요? 그래서 專任 講師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現任은 무엇이나고 그렇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答辯을 잘못했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봉변을 당했지요.

○崔鳳九委員 봉변이란 어떤 식으로 당하는 것입니까?

○證人 徐銘源 그때는 발로 한번 차인정도였습니다.

○崔鳳九委員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5月21日 午後에 大學에 주둔한 戒嚴軍이 철수한 以後이지요? 午後에 철수했지요? 午後에 철수해가지고 철수한 이후에 大學 뒷산에 매장된 시체 하나가 발견됐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2日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발견했습니다.

○崔鳳九委員 누구 印象着衣는 모릅니까?

○證人 徐銘源 印象着衣는 高等學生 차림이었습니다.

○崔鳳九委員 高等學生 차림인데 매장된 것은 발견되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레가지고 尙武館으로 모두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道廳앞 尙武館으로 모두 옮겼지요.

○崔鳳九委員 철수하고 난 뒤 매장된 시체를 발굴해가지고 22日 尙武館으로 옮겼다.....

○證人 徐銘源 예.

○崔鳳九委員 예. 알겠습니다.

5月19日 금남로에서 戒嚴軍에게 처녀가 젓가슴이 칼에 다쳐가지고 全南大醫大病院에 入院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혹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 얘기는 두번에 걸쳐서 들

었습니다.

○崔鳳九委員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까?

○證人 徐銘源 예,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런 것은 신빙할 수 있는 사람한테 들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어느 분한테 들었습니까? 自初至終을 얘기해 보지요.

○證人 徐銘源 戒嚴軍한테 20日 아침에 8時半頃에 出勤하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정차시키면서 身分調査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教授들이 거기에서 반항하니까 어제 내가 금남로에서 처녀도 유방을 찢었는데 말 안들으면 재미없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지요. 그러니까 教授들이 모두 身分證提示를 하고 협조를 했지요.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各 單科大學學生課長會議를 했습니다. 그런데 病院의 근무하신 분이 그때 醫科大學學生課長이었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분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證人 徐銘源 예, 癡醉課教授로 계신 朴찬진 선생님입니다.

○崔鳳九委員 아! 朴찬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會議에 참석해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습니까?

○證人 徐銘源 예,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證人 徐銘源 어제 그렇게 다쳐가지고 와서 사실은 험한 꼴이 있어서 다쳐가지고 와서 수술하기 위해서 자기가 癡醉를 해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崔鳳九委員 戒嚴軍의 初期鎮壓段階에서 과격한 폭행이 있었는데 18日 19日 兩日間에 걸쳐서 극도에 달했지요? 20日까지...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20日 오전에는 한군데서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카톨릭 센터」앞에서 저희들이 그날 尹恭熙大主教하고 조규호神父 저희들 모두 여러 사람이 본 데서 示威群衆이 심하게 거기에서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尹恭熙大主教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이 나한테 있으면...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市民들이 武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證人 徐銘源 저희들은 그것을 참말로 自衛權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崔鳳九委員 예를 들어서 그냥 軍人이나 官公署에서 보관하고 있는 武器를 奪取한 것이 自衛權이다?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무수하게 구타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市民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平常時에는 있을 수도없는 일이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80年 당시에 文教部長官이 光州에 오셔서 收拾策을 작성해가지고 민준식總長을 통해서 전달토록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收拾策을 그래도 全南大學總長이 建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收拾案을 저더러 革案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收拾案을 革案을 만들어가지고 學生課長會議에서 그것을 결정을 봐가지고 總長님께 전달을 했지요.

그랬는데 그 내용이 조금 그때 당시에는 總長으로서는 도저히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7月1日 戒嚴司合搜班에 不法拘禁된 일이 있지요?

○證人 徐銘源 예.

○崔鳳九委員 20日동안 거기서 조사를 받다가 放免되어 나왔지요?

○證人 徐銘源 예.

○崔鳳九委員 그때 金大中內亂陰謀事件造作을 위해 가지고 일정기간 證人을 拘束拘禁 시켰다가 釋放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로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徐銘源 그것은 金大中內亂陰謀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鄭東年씨가 資金을 500萬원을 갖다

가 示威資金으로 썼다고 하는데...

○崔鳳九委員 그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鄭東年씨나 關係者들이 證言을 했습니다.

○證人 徐銘源 예. 그런데 學生會費를 쓴 것이 한 2,000萬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많은 돈을 學生會費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連累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지요.

○崔鳳九委員 그래서 그때 다른 調査는 없었구요?

○證人 徐銘源 예.

○崔鳳九委員 그러니까 그돈이 혹시 示威資金으로 쓰여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까?

○證人 徐銘源 예.

○崔鳳九委員 밤도 길었고 하니가 제가 시간이 남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저 光州 民主化運動이 歷史的으로 어떻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證人은 봅니까?

○證人 徐銘源 글썽 제 입장에서는 功過是非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勳章타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고 그리고 명예를 宣揚해야 되겠다 이것을 抵抗權의 발동으로 보고 4·19와 같은 義學로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被害者는 마땅히 賠償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깊은 밤 이렇게 證人으로서 나와서 證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崔鳳九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 吳景義委員 訊問해주십시오 시간은 10分입니다.

○吳景義委員 밤늦게 미안합니다. 證人께서 멀리서 오셔서 늦도록 이렇게 本特委의 聽聞會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생각만해도 지긋지긋하고 그렇게 가슴아픈 일인데 그것은 光州市民도 軍도 모든 우리 국민들도 모두 다 피해를 입은 그런 일들이었으며 또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진상을 파헤쳐서 앞으로 이것을 敎訓삼아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은 없어야 하고 이것을 계기로

또 이것을 우리가 본보기로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歷史創造에 이바지하는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國家의 장래를 알아 보려면 그 나라의 학생들을 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證人께서는 教育機關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현장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만큼 학생들을 낳아 주신 부모님께 귀중한 보배이기도 하지만 그나라 장래에도 큰 기대가 되는 國家百年大計의 棟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대충 들어보니까 진실로 그때 상황이 示威過程이라든지 鎮壓過程이 그렇게까지 처참한 일을 벌였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의심이 가고 또 그 문제의 발단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생겼겠느냐 하는 점에서 오늘 이렇게 現場의 산 證人으로서 徐銘源證人은 누구보다 소상히 알지 않겠느냐 해서 이자리에 이렇게 모신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정말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어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부터 우선 한 말씀 해주십시오.

○證人 徐銘源 글썽.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지난 釜馬事態와 같은 맥락에서 光州 民主化運動을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이미 얼어 있는 곳에 다시 서리가 더 내렸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지요. 그런데 過剩鎮壓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光州市民들이 공격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말도 사실은 光州市民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吳景義委員 雪上加霜으로... 그래서 그렇다면 學生課長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學內분위기라든지 또 현장 주변이라든지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情報를 입수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 學生課長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다고 하셨지요?

○證人 徐銘源 제가 3月1日字로 發令을 받아서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가지고 7月21日 나와 보니까 이미 다른 분이 제 자리에 앉아 있고 제 辭表는 8月6日字로 수리가 되었는데 그사이에 저는 보직이 없는 상태였지요.

○吳景義委員 됐습니다.

8月6日 總務處에서 辭表가 수리가 되었는데

약 5個月동안 學生課長의 직책을 맡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몸소경험하면서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신 분으로써 아까 同僚委員의 말씀처럼 다행히도 살아 나셨는데 그당시에 5月學園街狀況 그리고 그때 學生들의 要求事項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을 하시지요.

○證人 徐銘源 全南大學校에서는 御用教授問題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御用教授問題때문에 사실상 진통을 많이 겪었지요.

○吳景義委員 總長問題는 國立이라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總長先生님도 御用教授로 물렸읍니다. 그때 御用教授로 물린 분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名중에 여섯분은 辭表를 쓰고 물러나겠다고 하고 다섯분이 辭表를 쓰지 않아서 그분들 때문에 그렇게 진통을 겪다가 5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들어 와서 政治圈의 문제가 학내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래서 여러가지 증척된 감정이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全國民的인 참여에 의한 개헌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全斗煥 퇴진하라 그리고 유신잔당 퇴진하고 勞動3權도 보장해 줘라 이러한 등등 그리고 戒嚴令을 빨리 해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軍을 자극할 정도로 學生들이 그리고 또 市民들의 행동이 무엇인가 자극을 시켜서 이런 勃發事態를 만들수 있는 계기까지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證人 徐銘源 글썽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읍니다.

○吳景義委員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상황은……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民主化聖會라고 하는 것을 계속 했는데 學內에서 그것을 평온하게 했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러면 學生들이 要求事項을 당시에 學校側에서는 教授들이라든지 學校當局은 어떠한 조치와 움직임은 어떠 했습니까? 만류한다든지 어떤 對處方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사실은 14日 道廳앞에서 시위

를 했는데 그때 教授분들이 앞장서서 끌고 들어 옵니다. 그것이 밖에서는 마치 교수님들도 동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데 실은 學生들이 다른 폭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서 우리가 앞장서서 學校로 들어갈 테니 너희들도 오너라 해서 끌고 들어왔지요. 그렇게해서 매일 현장을 教授님들이 갔읍니다. 學生들이 시위하는 현장에는 教授님들이 꼭 따라가 가지고 다른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吳景義委員 學生들도 보호하고 시위를 더 악화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류를 했다 教授님들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學生들이 몇 명이나 구속이 되고 문제가 되었더웠습니까? 기억이 나세요? 지금……

○證人 徐銘源 16日까지는 그렇게 연행되어 가고 그런 學生이 없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울學園상황은 아시는 바로 5月15日 16日시위가 學生들은 5月22日까지는 시위를 자제하고 앞으로는 우리 본연의 할 일인 學業을 다시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돌아 갔는데 그 당시에 光州學園街는 어떻게해서 그렇게 시끄러웠지요?

○證人 徐銘源 光州에서는 16日 「데모」를 마치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사표시를 다 했다 그러니까 暫定的으로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17일 부터서는 수업을 들어가자고 해서 그렇게해서 17일부터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래서 全南大學에 軍인들이 처음 들어온 것은 언제이며 들어올때는 무슨 사전 연락이 있고 들어 왔는지 어느날 갑자기 들어 왔는지……

○證人 徐銘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1時半부터 通信施設을 하기 위해서 들어 왔다고 제가 報告를 받았읍니다. 그리고는 저한테는 무슨 그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吳景義委員 通信施設한다고 그렇게 段階的으로 말하자면 처음에는 길을 빌려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은 마당을 빌려 가지고 안방까지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證人 徐銘源 午後에 이미 「텐트」를 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總長님하고는 그

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때 당시에 證人께서는 非常戒嚴 擴大措置內容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證人 徐銘源 派出所에 제가 가서 戒嚴軍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學校에서는 3時에 전화가 와서 정식으로 알고 그랬지요.

○吳景義委員 그때 政府側에서도 5·17 非常戒嚴 擴大措置를 하는 것은 學園街의 混亂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때 全南大學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學生들때문에 이렇게 擴大를 해가지고 濟州道까지 한다 그런데 全南大學校狀況분위기는 어땠습니까?

○證人 徐銘源 저희들 全南大學校는 다른 大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全南大學에는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吳景義委員 없었는데도 거기까지 해당되었으니까 어차피 軍인들이 들어왔다.

아까 證人께서 5月18日 어디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證人 徐銘源 5月18日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6時에 學校로 왔다가 11時半頃에 집으로 다시 아침식사하러 가가지고 8時半頃に 學校에 다시 왔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래서 學校정문에서 教授가 戒嚴軍한테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때 學生들이 200餘名이 20餘分間 警察과 대치해 가지고 시끄러웠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徐銘源 거기에서 제가 8時半頃に 도착을 해서 정문에서 지켜있었는데 거기에서 學生들이 처음에는 200餘名이 아니고 한 50名정도 그렇게 모였다가 한 200名 정도로 늘어나면서 示威隊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吳景義委員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警察이었습니까? 어떤 軍部隊였습니까?

○證人 徐銘源 軍인이었습니다.

○吳景義委員 軍인이었지요? 제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學生들의 행동은 어떻게 軍人들과 격렬하게 대치 되어서 그 자리에서

도 희생자가 나오고 그랬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 자리에서는 돌맹이를 던지고 잡으려고 하면 내뺐고 했지요.

○吳景義委員 그런데 證人께서는 市內의 流血事態가 많이 일어난 것을 곳곳에 資料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同僚委員들이 앞서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물어본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眞實與否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아세요 여러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것은 情報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현장을 그렇게 목격을 성의를 가지고 學生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몸소 일부러 그렇게 열성껏 다니시면서 확인하신 것입니까?

○證人 徐銘源 그때 學生指導用車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는 運行을 했습니다. 그리고 21日이 초과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때 그 상황은 光州市民은 너무나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런 정도로 몸소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하고 현장을 목격하신 중요한 대목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만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데 證人께서도 물론이지만은 우리는 하루빨리 光州眞相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앞으로 규명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밤늦게 고맙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吳景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平民黨의 辛基夏委員 10分동안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辛基夏委員 本委員에게 주어진 시간이 10分間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證人께서는 5月18日 아침 6時에 全南大學校에 도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法大學生代表인 박지수군이라고 아십니까?

○證人 徐銘源 잘 모르겠습니다.

○辛基夏委員 5月17日밤 11時30분에 연행되어 갔던 學生들중에 당시 法大高試班學生들 2·30名이 圖書館에서 숙식하면서 공부하다가 연행되었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證人 徐銘源 예.

○辛基夏委員 그중에 100餘日後에 尙武臺까지

끌러갔다가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지수라고 모르겠어요 學生代表였는데?

○證人 徐銘源 個人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辛基夏委員 그러면 아침 7時頃に 全南大學校의 정문앞에서 學生 한두名씩 오는 사람과 空輸部隊員과 서로 충돌이 있는 것을 보고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8時半에 오셨다고 그랬지요. 8時半에 오면서도 마음이 學生들과 空輸部隊員들과의 사이에 얼마나더 충돌이 있고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까 그러한 걱정이 많은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정문 바로안에서 수위실이 있지요 수위실 근처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와보니까 學生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30名정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空輸部隊員들한테 맞아가지고 연행되어서 안에 억류되어 있는 學生들도 있었을터인데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2·3名정도……

○辛基夏委員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30名이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예.

○辛基夏委員 그때는 계속 空輸部隊員들이 진압용으로 때리고 軍化발로 차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지요. 學生들은 성질나니까 욕하고…

○辛基夏委員 學生들은 계속 욕하고 더 모여 들고

○證人 徐銘源 예.

○辛基夏委員 광성旅客自動車工場의 從業員들도 그런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왔었다는데 그런 사실을 혹시 아세요?

○證人 徐銘源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學生들이 그쪽으로 쫓겨 갔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래서 결국은 쫓겨가는 상황이 될 때는 아주 심한 구타와 폭력이 행사되었을 터인데 계속 좀더 강한 구타가 있었던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證人 徐銘源 그렇지요. 잡히면 그때 반정도는 죽는다고…

○辛基夏委員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만 답해 주세요.

軍人들의 손에는 鎗壓棒들렸지요?

○證人 徐銘源 예.

○辛基夏委員 그 다음에 帶劍들렸습니까 안들

렸습니까?

○證人 徐銘源 鎗壓棒이 있을 때는 帶劍이 없었습니다.

○辛基夏委員 鎗壓棒만 들었지요. 帶劍은 그러면 옆에 찼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지요.

○辛基夏委員 탄띠맸지요?

○證人 徐銘源 예.

○辛基夏委員 뒤에는 총을 옆으로 비스듬히 맸었지요.

○證人 徐銘源 예.

○辛基夏委員 그래서 鎗壓棒으로 온 몸을 가리지 않고 치고 軍化발로 차고 그랬단 말입니까?

○證人 徐銘源 예.

○辛基夏委員 그러면 學生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혼란된 軍人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지요.

○辛基夏委員 당시에 全南大學校 정문앞의 道路는 鋪裝이 되어 있었습니까 안되어 있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큰 道路는 鋪裝이 되어 있고 작은 道路는 鋪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辛基夏委員 큰 道路라는 것은 정문앞에서 바로 직선으로 뚫리는 道路는 鋪裝이 되어 있고 直線道路에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道路가 삼익「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여러개 있는데 그 옆道路들은 鋪裝이 안되어있고 더우기 全南大學校運動場옆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개천이 있지요?

○證人 徐銘源 예.

○辛基夏委員 개천과 담옆으로는 鋪裝이 안돼 있지요?

○證人 徐銘源 예.

○辛基夏委員 그래서 얼마든지 상당정도의 돌맹이는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지요.

○辛基夏委員 證人께서는 어느정도의 學生들이 모여 있을 때 정면으로 하나의 示威의 양상을 띠어가지고 學生들이 돌을 던지고 空輸部隊軍人들은 폭력으로 맞아서 나와 가지고 學生들이 도망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徐銘源 그때가 300名정도나…



○辛基夏委員 그래서 軍人들은 몇명이나 됩니까?

○證人 徐銘源 軍人들은 한 20名정도 되었습니다.

○辛基夏委員 한 20名정도가 아주 강하게 대처하고 강하게 때려버리니까 도망가더라. 그러면 證人이 보기에 거기에서 넘어져 가지고 軍人들한테 붙잡힌 學生들의 數는 몇명이나 되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때 정확히 그렇게 몇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5·6名정도 7·8名 그렇게 자주 잡히기 때문에 어느 時點까지 어떻게 이야기 하기가 곤란합니다.

○辛基夏委員 한번쯤 잡히면 무자비하게 맞은 것이지요?

○證人 徐銘源 무자비... 具體적으로 자주 이야기를 하시도록 하니까...

○辛基夏委員 간단히 한말로만 해보세요.

○證人 徐銘源 무자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辛基夏委員 무자비라는 말을 해석을 말고 鎮壓棒으로 말하자면 몸의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막 때리고...

○證人 徐銘源 꼭 3박자로 때렸습니다. 양어깨 때리고 이마를 때리면 그냥 콧수레 찢어집니다.

○辛基夏委員 발로 차지는 않습니까?

○證人 徐銘源 발은 당연히 그것은...

○辛基夏委員 그리고 아까 同僚委員의 訊問時에 5月18日 午後 5時頃에 市外「버스터미널」앞에서 銃劍術하듯이 했다. 示威群衆들한테 銃劍術하듯이 했다. 그렇게 말했지요?

○證人 徐銘源 예.

○辛基夏委員 그리고 또 5月19日 午後 4時頃에 市外「버스터미널」에서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처너도 상의를 찢기고 구타를 당했다. 銃劍術이라고 한다면 M16에다가 帶劍을 꽂아 가지고 쥘러 총의 자세로 쥘러 버리는 것이었습니까 어떤 식이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래서 몸에다 직접 찌르는 것이었습니까 몸가까이에 위협만 가하는 것이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쥘리어서 피가 나온 것도...

○辛基夏委員 사람도 있고 거기 몸이 안닿으

면 도망가는 것이고 닦은 사람은 쥘리는 것이었다 그것을 봤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學生들이 全南大學校앞에서 空輸部隊員사이에 충돌이 생길 때 學校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었지 그 책가방속에 돌이 들어가지고 돌을 가지고 와서 일부러 空輸部隊員들에게 던지는 광경 보았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것은...

○辛基夏委員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것은 돌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辛基夏委員 그 근처에 돌이 많이 있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지요.

○辛基夏委員 그래서 없었고 보지도 않았다.

○證人 徐銘源 예. 그리고 아침에 일찌기 圖書館에 갈 學生들이고 10時頃에는 어찌 되었는가 보자고 구경삼아 온 學生들도 있었지요.

○辛基夏委員 그래 證人이 보기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非常戒嚴이 확대된 사실도 모르고 어차피 非常戒嚴하니까 모르고 休校令이 내린 사실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요?

○證人 徐銘源 예.

○辛基夏委員 그래서 證人은 學生課長の 위치에서 이제 戒嚴軍이 와가지고 강력 대처하고 休校令까지 내린 상황이니 가급적 學生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學生들을 달래서 돌려보내는 일에 종사했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어떻게 戒嚴軍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 그 말이나 그런 것 아닙니까?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校內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放送을 계속했습니다.

○辛基夏委員 그 다음에 全南法大 신모 教授가 그날 學校에 登校하고자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空輸部隊 戒嚴軍이 못 들어가게 했었지요?

이름을 말해도 그분의 위신에 손상이 안 되겠지요?

○證人 徐銘源 신원형 教授입니다.

○辛基夏委員 그때는 專任講師였지요? 지금은 ...

○證人 徐銘源 지금은 副教授입니다.

○辛基夏委員 신원형 教授가 들어가려고 하나  
까 戒嚴軍이 신분을 물었지요 專任講師라고  
하니까 前任이 講師면 지금은 무엇이냐 하고  
군화발로 차고 또 곤봉으로 때렸다면서...

○證人 徐銘源 곤봉으로 때리지는 않았습  
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요?

○證人 徐銘源 발로 차기만 했습니다.

○辛基夏委員 前任은 講師인데 現職은 뭐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證人과 더불어서  
法大 教授다 그렇게 말했다 그것이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지요.

○辛基夏委員 그래서 法大教授라는 것을 확인  
시켜가지고 들어갔지요?

○證人 徐銘源 예. 들어갔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때가 5月18日 아침 몇時頃이  
었습니까?

○證人 徐銘源 그때가 10時半이나 되었을 것  
입니다.

○辛基夏委員 時間關係上 證人에게 同僚委員들  
이 전부 狀況 狀況別로 못 물어보았지만 아  
까 同僚委員들이 몇가지 물어보니까 證人이  
光州에서 일어났던 5·18民主化運動의 全狀況  
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證人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부 與黨委員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光州에서 5月18일부터  
27일까지 일어났던 民主化運動過程의 극히 일  
부분을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  
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나까...

지금 과잉진압 과잉진압하는데 소위 과잉진  
압이라는 것은 진압해야 할 일이 있는 示威  
라든가 기타 騷擾事態가 있었을때 이를 진압  
하는 행동이 있었어야 할 터인데 아무런  
저항의사나 示威行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로 표현하면 무자비한 구타 非人間的인 鎮  
壓棒으로 구타하고 군화발로 차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光州市民의 정의로운  
항거가 있었다 그래서 이는 한말로 光州義  
舉다 그러지 과잉진압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證人 徐銘源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물을

말 證人이 證明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 너무  
나 많은데 한정된 시간때문에 이상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證人 徐銘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辛基夏委員 예. 한말씀만 해주세요.

○證人 徐銘源 前에 몇日 前에 金宗培證人이  
와서 原子彈이라도 있으면 쏘고 싶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자주 引用이 되고 그러는데 聖  
職者이신 尹恭熙大主教께서도 銃이 있었으면  
내가 그 때 쏘고 싶었다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저희들이 같이 目擊했던 「카톨릭 센터」  
앞에서 20日 10時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이 聖職者 입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金宗培證人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그렇게 빚대어서 이야기를 삼가해주셨으면 하  
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證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  
니다. 이상으로 徐銘源證人에 대한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3時에 光州特委委員會 續開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것을 정리하고 다음 모임에 관  
한 준비도 하고 해서 委員會가 필요합니다.

날이 바뀌었으니까. 오늘이 됩니다.

오늘 오후 3時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零時25分 會議中止)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出席委員

文 東 煥	權 海 玉	金 吉 弘
朴 燾 太	辛 卿 植	沈 明 輔
安 榮 基	李 光 魯	李 肯 珪
李 敏 變	鄭 東 鎬	鄭 昌 和
趙 榮 藏	金 泳 鎭	辛 基 夏
李 海 瓚	趙 贊 衡	趙 洪 奎
崔 鳳 九	金 光 一	朴 泰 權
吳 景 義	李 仁 濟	張 石 和
金 文 元	金 仁 坤	玉 滿 鎬
朴 燦 鍾		

○委員아닌出席議員

康 祐 赫	金 東 仁	金 潤 煥
金 仁 基	金 泰 鎬	金 顯 煜
朴 承 載	朴 進 球	沈 晶 求
俞 學 聖	尹 吉 重	李 相 得

林 仁 圭 洪 世 基 金 大 中  
金 元 基 朴 錫 武 朴 英 淑  
徐 敬 元 李 相 洙 鄭 祥 容  
許 京 萬 崔 二 鎬

○出席專門委員及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陳 在 勳  
立 法 審 議 官 金 永 善

○出席證人

朴 俊 炳 (前第20師團長)  
鄭 雄 (前第31師團長)  
徐 銘 源 (前全南大學校學生會長)